

1막

(

배경 설정: 미국-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. 러시아의 패전 위기로 공산주의 세력이 약화됨. 극 중 후반부,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제적인 압박이 심화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대대적인 핵전쟁을 벌이며 인류가 멸망될 위기에 놓임.

)

- 전쟁, 기근, 죽음 등과 관련된 흑백 뉴스릴 필름이 나오며 인간의 끝없는 고통에도 끝이 오고 있다는 나레이션.
- 창섭이 큰 교회로 이전할 수 있는 경제력이 생기길 기도한다.
- 영호가 창섭에게 간 기증을 부탁한다. 창섭이 신은 침묵으로서 일하신다며 계속 기도하라고 할 뿐 직접적으로 도와주진 않는다.
- 깊은 밤 창섭의 교회에 알몸의 남자가 나타난다. 말을 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신원의 남성. 창섭은 가방 안에 큰 돈이 있을것이라 생각한다.

(제 1구성점: 낯선 남자의 등장. 창섭 욕망의 시발점)

2막

- 창섭이 남자의 가방을 훔치려 한다.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훔치지 못하고 장롱 안에 숨는다.
- 영호가 흥신소 직원과 함께 들어온다. 둘은 잠든 남자를 제압해 납치해간다.
- 창섭은 굳이 낯선 남자를 위해 신고할 필요가 없고 영호가 가져간 가방만 받아내면 된다고 생각한다.
- 창섭이 자전거를 타고 영호의 차가 향한 방향으로 무작정 뒤따라간다.
- 산길을 따라 쫓아가는데 영호의 차가 멈춰서 있다. 창섭이 천천히 다가가 차 안을 살피지만 아무도 없다.
- 갑자기 바람이 불고 소름끼치는 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. 창섭이 소리나는쪽을 보자 어두운 수풀 사이로 빨간 눈동자가 보인다. 놀라 달아나는 창섭.
- 로마서 8:1-2에 관해 설교중인 창섭.
- 예배당 구석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. 누구인지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 창섭. 남자가 천장을 보며 울고 있다.
- 예배를 마친 후 신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창섭. 영호가 타고 온 차가 아직도 길가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. 전날 밤 영호의 차가 세워져 있던 장소로 가는 창섭.
- 성스러운 오르간 소리와 함께 창섭이 간이 파먹힌 채 살아있는 흥신소 직원을 목격한다. 매에게 계속 간을 파먹히는데도 죽지 않아 고통스러우니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하는 직원.
- 직원이 남자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라고 알려준다. 창섭은 직원의 목숨을 끊어준다.

(중간점: 남자의 정체가 악마였음이 밝혀짐)

- 창섭의 뒤에 남자가 서있다. 창섭이 놀라서 넘어진다. 남자는 아랑곳않고 숨이 끊긴 직원의 눈을 감겨주고 기도를 한다.
- 창섭이 남자를 제압하여 불태운다. 남자의 가방을 열어보는 창섭. 나팔 한개만이 들어있다. 창섭이 가방을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.
- 교회로 돌아온 창섭. 거지꼴인 영호가 교단에 서서 신도들에게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설파한다. (소돔 언급) 그러나 신도들은 몸이 굳은 듯 껍뻑히 서서 영호를 쳐다볼 뿐 아무런 반응이 없다. 영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만명, 1000명, 아니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건지 묻는다. 하늘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다.
- 창섭이 영호에게 다가가 자신이 그 남자, 즉 악마를 불태워 죽였다고 말한다.
- 영호가 광분하며 창섭의 목을 조른다.
- 갑자기 밖에서 전투기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며 천장이 흔들린다.
- 북한이 핵전쟁을 시작했다는 공습경보가 울린다.

(제 2 구성점 : 핵전쟁의 발발)

3막

- 교회 신도들이 회개하며 인류의 구원을 빈다.
- 교회로 남자가 걸어들어온다. 한 손에 나팔을 든 체다. 창섭은 그제서야 남자가 천사였음을 깨닫는다. 나팔을 보고 요한계시록 8:1-2를 떠올리는 창섭.
- 과열된 분위기의 신도들. 시끄럽던 교회가 일순간 침묵한다. 신도들이 테오도르 제리코의 '메두사 호의 뗏목'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몸이 딱딱하게 굳어있다.

-남자의 뒷모습을 비추며 인간의 끝없는 고통에도 끝이 왔다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온다. 그가 몸을 돌리자, 나레이션이 아닌 남자의 목소리였음이 밝혀진다. 남자가 신이 인간에게 내린 마지막 축복이라는 말을 한 뒤 입으로 나팔을 가져다 댄다. 화면이 암전되고 나팔소리가 일곱 번 울린다.